

News

주담대 6.4조 ↑ …은행 가계대출 1000조 넘었다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996.4조)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컸다. 전세대출이 3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

1월 국내은행 연체율 역대 최저 수준… 코로나 지원에 따른 착시

헤럴드경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풀이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31%.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월말(0.28%)에 비해서는 상승, 1월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저치

미국 10년물 국채입찰 나쁘지 않았다…응찰률 2.38배

이데일리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10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날 오후 실시한 38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38배 이날 입찰 소식이 알려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았다. 장중 1.506%까지 하락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1일 30년물 입찰에 나선다.

금융지주 "변화보다 안정"… 사외이사 26명 중 22명 연임할듯

동아닷컴

4대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8명꼴로 임기가 끝나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확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그룹들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외이사 교체를 최소화해 조직 안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

돌아온 '보험사 주총시즌'… 삼성생명 등 주요사 관전포인트는?

머니S

오는 15일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의 정기주총이 막을 올린다. 삼성화재는 19일, 교보생명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26일에 개최 슈퍼 주총데이는 26일 올해는 주주가치 제고방안이 가장 큰 이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이유로 보험사의 배당 자제를 요구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으로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

한국금융지주 "한투증권 홍콩법인 1694억원 유상증자"

아시아투데이

한국금융지주는 종속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 운영자금 1694억1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 신주 발행주식은 보통주 1억5000만주며, 확정발행가는 1주당 1129원

성장을 정체에 코로나 덮친 보험사, 해외서 돌파구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글로벌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 인구감소와 보험시장 성숙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 보험업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해외 법인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지원이 확대 규제 완화 지속되는 상황"

현대해상, 인슈어테크 '보맵' 투자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은 비대면 보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맵은 지난 2015년부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제안하고, 보험금 청구 및 건강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획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